

대학가 소식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선정

동국대총동창회는 '올해를 빛낸 2019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자로 김진문 신성약품회장(사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경제부문상은 황경환 진양유조선 회장, 학술부문상은 김환기 동국대 일본학과 교수를 각각 뽑았다. 모범동창회 표창은 경주지역동창회(회장 조덕형)가 받는다.

대상 수상자 김진문씨는 1985년 신성약품주식회사를 창립해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유통업체로 성장시켰다.

1994년 4월부터 김진문 장학, 경영학과장학 등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뿐만 아니라 교지 매입기금, 건학 100주년 발전기금,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 로터스관건립기금 등 18여억원을 출연했다. /한용수 기자

성균관대
검사 합격 전국 1위 달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발표한 임용 재판연구원(로클릭) 선발전형에서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같은 달 발표된 신규검사 선발 전형에서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재판연구원 및 검사 합격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성균관대는 올해 재판연구원(로클릭) 합격자를 20명(재학생 18명, 졸업생 2명) 배출함으로써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신규검사 선발전형에서도 12명(재학생 7명, 졸업생 5명)이 합격하며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68.8%를 기록했고, 대형로펌에도 다수가 채용 확정됐다. /한용수 기자

한신대-넷케이아이 교류 협약
산학협력모델 개발 맞손

한신대학교가 지난 3일 장공관 회의실에서 (주)넷케이아이(대표이사 김성용)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신대 재학생의 넷케이아이 현장실습 및 인턴기회 제공 ▲넷케이아이의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무상 기증과 실습수업 활용 지원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등 산학협력모델 개발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총장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넷케이아이와의 협약은 매우 뜻깊다"며 "장비 기증과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학생을 키워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학 합격예상 점수, 인문계열 ↑ 자연계열 ↓

입시업체별 예상 합격선은 상이
가나다군별 지원 기회 활용해야
대학별 특징 감안해 전략 마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국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시 지원가능 예상점수의 변동에 관심이 쏠린다. 입시업체에서는 올해 수능 난이도 영향에 따라 합격 예상 점수가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상승, 자연계열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시업체별 예상 합격선은 상이하므로 전년도 합격선과 비교해 등락을 확인하는게 좋다. 입시전문가들은 예상 합격선을 맹신하기보다는 전년도 합격선과 비교해 참고하고, 가나다군별 1회씩 총 3번의 지원기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4일 입시업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전년대비 상승하고, 자연계열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문계열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험생들이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가 높아졌고, 사회탐구 또한 전년도보다 변별력있게 출제돼서다. 수험생들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 139점에서 149점으로 상승했고, 사탐 1등급컷이 만점인 과목이 전년 6개에서 3개로 줄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150점에서 올해 140점으로 하락, 상대적으로 점수하락이 반영됐다. 수학가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 133점에서 134점으로 비슷했고, 과탐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어, 자연계 수험생의 수능 영역 표준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수학·탐구 3영역 표준점수 합계 기준 대학·학과별 지원가능 예상점수〉

대학	계열	학과 및 학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대학	계열	학과 및 학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경희대	인문	경영	389	396	성균관대	인문	글로벌경영	398	403
	자연	의예	405	401		인문	사회과학계열	395	400
	자연	한의예	395	394		자연	의예	408	403
고려대	인문	경영대학	403	410	연세대	자연	반도체시스템공학	392	393
	인문	경제학과	402	409		인문	경영	403	410
	인문	영어영문	399	405		인문	정치외교	400	405
서강대	자연	의과대학	408	403	동국대	인문	영어영문	399	405
	자연	사이버국방	394	394		자연	의예	409	404
	인문	경영학부	396	402		자연	치의예	401	399
서울대	인문	인문계	391	400	중앙대	인문	경찰행정학과	389	396
	자연	화공생명공학계	387	387		인문	사회과학대학	389	396
	인문	경영대학	406	413		인문	경영경제대학	396	402
이화여대	인문	정치외교	405	412	한국외대	자연	의학부	405	401
	인문	국어교육	404	410		자연	창의ICT공과대학	388	389
	자연	의예	410	405		인문	LD학부	394	400
이화여대	자연	화학생명공학부	400	398	한양대	인문	ELLT학과	389	396
	인문	인문계열	390	394		인문	정책	396	402
	인문	의예과(인문)	405	411		인문	경영학부	393	400
이화여대	자연	자연계열	385	382	한양대	자연	의예	405	401
	자연	의예과	405	401		자연	미래자동차공학	392	393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실제로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원가능 점수(국수탐 표준점수 합계, 만점 600점)는 서울대 경영대학은 지난해 406점에서 올해 413점으로 상승했고, 정치외교(405점→412점), 국어교육(404점→410점) 등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상승했다. 반면 서울대 의예(410점→405점), 화학생명공학부(400점→398점) 등 자연계열 합격선은 하락했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에 각 1곳씩 총 3회 지원하고, 대학별 모집군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능 성적대별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최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지원 희망 대학이 주로 가군과 나군에 많아 사실상

2번의 지원 기회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추가모집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내가 지원한 군에서 나보다 성적이 높은 수험생들이 다른 군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위권의 경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활용지표, 학과별 전형방식 등을 따져 자신의 점수가 상대우위인 전형 지원을 우선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는게 좋다.

하위권의 경우 일부 대학은 수능 3개 또는 2개 영역만 반영하는 점도 많으므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수능 영역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 편이므로 수능보다 학생부가 유리하다면 이들 대학을 고려하는게 좋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가나다군별로 2~3군데 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 각 대학별 환산점수를 계산해 내 성적으로 어느 곳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입시업체가 제공하는 모의지원 서비스는 올해 수험생들의 지원 추세를 파악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입수능시험 성적표 배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여의도여고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교육청
'AI 융합교육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과 공동 주최하는 '2019 AI 융합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한국교육학회, 정보과학교육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문에는 '미래사회 전망, 학교교육 현실, AI시대 교육의 변화, AI 융합교육의 시작'의 내용이 포함된다.

컨퍼런스에서는 AI교육을 과학, 수학, 정보 과목에 적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AI교육의 의미와 향후 계획, 교육적 가치 등에 대한 좌담회도 진행된다. 사전행사로 인텔코리아가 실시하는 AI 활용교육 프로그램 'AI4Youth'가 소개되고, 안민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노웅래(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한다. /한용수 기자

135개 대학 참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 결과에 따라 1:1 맞춤형 상담
대학 입학정보 검색 자료관 마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일~7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전국 135개 대학이 참가하는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관련 교수와 직원, 입학사정관이 대학의 앞선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일대일 대입상담관'에서는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상담을 진행한다.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정보 등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홍보관 등 다양한 특별관도 운영된다. 박람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4시 30분, 입장료는 1000원이다. /한용수 기자